

새로 나온 책.....

▲대승불교(문음식 옮김)=초기 대승불교의 사상과 그 전개...

▲꽃들은 달다(이종용 지음)=소타다 깨어진 머리 된 장 발라...

▲아기집자리(김종삼 지음)=불교아동문학의 화강집 종상시인의 동요...

▲자연, 사람, 그리고 한의학(김명호 지음)=우리 한의학의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심신의학'이다...



한국 전통회화의 정수인 탕화(餠畵) 5천여점을 집대성한 (한국의 불화) 간행 대작불사가 본격화됐다.

'직지사 편' 첫선 2005년까지 총 41권 완간 북한·해외자료등 조사정리 CD롬 제작도

역경원 '발지론' '아비담론' 국역 동국역경원(원장 일운)의 새 한글대장경 <아비담마발지론 외>와 <사리불아비담론 1>이 나왔다.

탱화 5천여점 집대성 '한국의 불화' 발간



◇ 조경식



◇ 김병호

찰소장 주요 탕화류 및 국내외 소장 탕화로 후불탱 보살탱 신장탱 괘불 각부탱(各部畵) 영탱

중국 사찰과 국내의 소장 탕화의 80% 이상(일제시대 이후 제작물 제외)을 수록하는 거대한

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지난 89년 12월 전국사찰 불화조사단의 회주를 맡으면서 이 불화에 인력을 쏟은 김병호...

이미 확보한 조사필름만도 7만여점에 달하는 방대한 연구성과를 집적해 온 성보문화재연구원장 김병호(문화재위원)는 "조계종 지원 아래 교구본사별로 전국의 사찰불화를 연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불교계 최초의 사보'로 기억되고 있는 '신행불교(新行佛敎)'가 지난 겨울호를 내고 종간애 아쉬움을 크게 하고 있다.

로 제작된 '신행회보'는 월간으로 끊어서 만든 등사본으로 시작됐다. 1969년부터는 월간(月刊)으로 86년까지 이어오다 86년부터 제호를 '신행불교'로 바꾸었다.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이문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원)은 "조계종 지원 아래 교구본사별로 전국의 사찰불화를 연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연구원은 이달말까지 '직지사 본말사편(하)'을 완간하고 '통도사 본말사편(상·중)'을 3월에, '통도사 말사편(하)'을 7월에 각각 출판한다.

김재경 기자



최초 寺報 '신행불교' 중간 광우스님 1961년 등사본 발행

로 제작된 '신행회보'는 월간으로 끊어서 만든 등사본으로 시작됐다. 1969년부터는 월간(月刊)으로 86년까지 이어오다 86년부터 제호를 '신행불교'로 바꾸었다.

이경숙 기자

한중불교문화교류사 권오철 옮김

4세기 삼국시대 중기부터 15세기 조선초까지 1천여년에 걸친 한·중간의 불교문화교류사를 전체적으로 조명한 <한중불교문화교류사>가 번역됐다.

한·중 불교문화교류의 모든 것을 집대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승려들의 중국에서의 구법활동이 중국불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혀 눈길을 모은다.

역경원 '발지론' '아비담론' 국역

교의 일파인 실일체유부 교학의 기초를 체계화한 논서다. 모두 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다연니자(迦多衍尼子)를 비롯한 성문들이 결집했다.

발간했다. 이 책은 가정과 직장, 예절과 관공상제, 명절음식과 음식먹는 법도 등 누구나 지켜야 할 예절 전반을 담고 있다.

1996학년도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출강 법사교육 신입수강생 모집. 한국불교법사대학

아바타 코스: 깨달음의 향연. Avatar. 一切唯心造 (뜻대로 사는 길)

문체부 추천도서 중 불서 86종. 68년~95년 목록 분석. 1%에 불과한 5종으로 드러나...

2천만에 깨달음을.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